

# 광주·전남 신생기업 3곳 중 1곳 1년도 못 버틴다

### 지난해 신생기업 6만944개...전년비 광주 2.4%·전남 7.7% 늘어 제조업은 크게 줄어...2019년 1년 생존율은 각각 65.6%·65.5%

광주·전남 신생기업 3곳 중 1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소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신생기업들의 생존율은 생존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국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19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0년 기업생멸 행태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새로 경제활동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은 광주 2만6695개·전남 3만4249개 등 6만 944개로 집계됐다. 신생기업은 전년보다 광주는 623개(2.4%) 늘고 전남은 2463개(7.7%) 증가했다. 전국 신생기업은 전년보다 6.2%(6만2063개) 증가한 105만8842개로 나타났고, 17개 시도 가운데 충남(12.3%)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지역에서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은 광주 17만6875개·전남 21만 9445개 등 39만6020개였다. 각각 전년보다 3.4%(5829개), 전남 5.8%(1만2075개) 증가한 수치

다. 전국 활동기업은 4.5%(25만4306개) 증가한 682만850개로 조사됐다.

지난해 지역 신생기업이 광주 2.4%·전남 7.7% 늘어났다는 통계가 나왔지만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광주·전남 두 지역 모두 제조업 신생기업이 나란히 줄었고, 특히 광주 제조업 신생기업은 최근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제조업 신생기업은 광주 957개·전남 1720개로, 전년보다 각각 2.0%(-20개), 5.7%(-104개) 감소했다.

전국 제조업 신생기업 감소율은 0.9%였는데, 전남은 경남(-13.2%), 울산(-9.9%), 충북(-6.3%)에 이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산업별로 들여다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감소율이 23.3%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사업자(30.3% ↑) 등이 많이 늘어난 반면 음식·숙박업(-12.2%), 운수·창고업(-9.6%), 예술·스포츠·여가업(-15.2%) 등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은 신생기업 수가 1년 전보다 줄었다.

전남지역도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 신생기업 감소율이 22.9%로 가장 컸고, 음식·숙박업(-6.6%),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6.2%)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반면 광업(60.0% ↑)과 전기·가스·증기 공급업(51.9%), 부동산업(26.4%) 신생기업 수는 전년보다 많았다.

신생기업 중 '기준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뜻하는 생존율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2018년 신생기업 중 2019년까지 생존한 기업 비율로, 코로나19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2019년 기준 지역 신생기업 1년 생존율은 광주 65.6%·전남 65.5%로, 전년보다 각각 2.9%포인트·2.6%포인트 증가했다. 신생기업 3곳 중 1곳(광주 34.4%·전남 34.5%)은 1년도 못 버티고 소멸한다는 의미다.

광주·전남은 척박한 기업환경은 생존주기가 길

어질 수록 심각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으로부터 3년 전 시작한 신생기업이 버티 비율은 광주 42.6%·전남 43.9%로, 두 지역 모두 전국 평균(44.5%)을 밑돌았다.

5년 생존율의 경우 광주는 집계가 이뤄진 지난 2016년부터 3년 내내 최하를 기록하다가 2019년 0.8%포인트 오른 29.6%를 나타내면서 울산(28.3%)에 꼴찌 자리를 내줬다.

하지만 6년 생존율은 2017년 22.2%, 2018년 23.7%, 2019년 25.3% 등으로 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하를 나타냈다. 7년 생존율(2018년 19.7%, 2019년 21.2%)도 2년 연속 전국 꼴찌를 놓치지 않았다.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중 매출액 및 상용근로자가 최근 3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한 고성장기업은 광주의 경우 4개(-6.1%) 감소한 62개·전남은 3개(3.8%) 늘어난 83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20% 이상 고성장기업 중 사업자등록 5년 이하인 '가젤기업'은 광주 25개·전남 44개로, 전년보다 광주는 3개(-10.7%) 줄고 전남은 9개(25.7%) 늘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기아 오토랜드 광주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후원



기아 오토랜드(AutoLand) 광주(공공장 박래석)는 지난 17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특수장학회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후원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특수장학회에 총 1억500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하는 등 소방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후원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1000만원의 후원금을 (재)특수장학회에 전달했고, 이후 진행된 '특수장학회 21년 장학금 수여식'을 통해 소방공무원 자녀 40명에게 장학금이 지급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효성티앤씨·현대중공업 MOU 폐페트병 재활용 근무복 제작 친환경 '리젠 프로젝트' 추진

효성티앤씨는 최근 현대중공업그룹·현대리바트와 함께 현대중공업그룹 내에서 수거한 폐페트병을 재활용하는 '리젠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하고, 업무 협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업은 친환경 자원재순환 근무복을 도입해 근무자들의 친환경 의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활성화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됐다.

효성티앤씨의 '리젠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협업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세울', '리젠제주', '리젠오션' 등을 생산하고, 이를 친환경 패션 브랜드들과 함께 의류 및 가방으로 제작하는 국내 대표 친환경 프로젝트이다.

이번 현대중공업그룹·현대리바트와의 협업 뿐 아니라 지난 8월에는 포스코·여수광양항만공사와 '광양만권 자원순환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는 등 주요 기업들과의 협업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중공업그룹은 각 사업장 내 폐페트병의 분리·배출 및 별도 선별 체계를 구축한다. 효성티앤씨는 수거된 폐페트병을 재활용해 친환경 리사이클 섬유 '리젠'을 생산하고 현대리바트는 이를 활용해 친환경 자원재순환 근무복으로 제작해 내년 6월부터 현대중공업그룹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은행 취약계층 연탄 700장·후원금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욱) 신입행원 등 30여 명은 지난 17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결손 가정에 연탄 700장을 전하고 난방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500만원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 기부했다. <광주은행 제공>

## "광주·전남 고령화 추세 선제적 대응해야"

한은 '인구구조와 생산 영향' 자료

광주 인구증가율과 유소년 인구 비중은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고, 전남은 노인 인구 비중과 노인 부양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광주·전남을 중심으로'를 공개했다. 연구에는 임상수 조선대 교수와 김대은

한은 광주전남본부 과장이 함께 진행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17일 열린 '2021한국재정정책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광주와 전남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소년 및 생산가능인구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대상 군집분석 결과 광주와 전남은 인구증가율과 유소년 인구 비중이, 전남은 노인 인구 비중과 노인 부양비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과 대안을 도출했다.

우선 광주는 자본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타 시도에 비해 크기 때문에 자본 확충 속도를 높여야 하며, 청년층 유출 억제 등을 통해 노동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은 자본량 자체의 경제성장효과가 크므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두 지역 모두 고령층 인력의 생활활동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을 발굴해 고령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사학연금 10년 연속 우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환경부 주최·한국환경공단 주관 '2021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성과보고회'에서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 달성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사학연금은 공로패와 현판을 받았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제도이다.

사학연금은 2011년 환경부 감축목표 4%를 웃도는 11.6% 달성을 시작으로, 올해 11월말 기준 50.1%를 감축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

## 로도복권 (제994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3 8 24 27 35	28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861,582,063	12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53,188,059	70
3	5개 숫자일치	1,328,279	2,803
4	4개 숫자일치	50,000	137,937
5	3개 숫자일치	5,000	2,216,661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Q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